

금요 양성 2025년 9월 26일 (단위형제회와 나누시오)

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: 삼위일체적인 사람

성프란치스코는 하느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열망했다. 그의 목표는 아버지께로 그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었다. 그는 예수님이 사랑받으신 것처럼 성부에게서 사랑받기를 원했다.

프란시스: 성부의 자녀

- 하느님의 섭리를 완전히 신뢰하고 의탁하는 삶을 살았다.
- 모든 피조물을 성부의 사랑과 너그러움의 반영으로 보았다.
- 모든 피조물에 대한 성부의 돌봄을 기리기 위한 방법으로 가난을 받아들였다

프란시스: 성자의 모방자

- 예수님의 겸손과 동정과 희생적인 사랑을 삶의 모델로 삼았다.
- 그리스도와와의 일치에 위한 길로 고난과 봉사를 받아들였다.
- 스스로를 “위대한 왕의 전령” 이라고 칭하면서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그의 신심을 보여주었다.

프란시스: 성령을 품은자

- 기쁨, 평화, 단순함인 성령의 열매로 빛났다.
- 기도와 관상으로 하느님의 뜻을 식별했다.
- 사랑, 화해, 영적 쇄신에 뿌리를 둔 공동생활을 고무시켰다.

프란시스: 기도안에서 삼위일체적임

- 그의 글과 찬미안에서 자주 성령을 불렀다.
- 삼위일체의 각 위를 뚜렷하게 구별하면서도 조화롭게 찬미하는 기도문을 지었다.
- 하느님과 신비적인 일체를 체험하였는데 특히 오상을 통해서 그러하였다. 오상은 십자가와 못박히신 예수님과의 진정한 일치의 표지이다.

프란시스: 미션에서 삼위일체적임

- 지배보다는 더불어 있음, 겸손, 평화를 통하여 선교하였다.
- 모든 사람과 피조물사이에 형제애를 증진하여 삼위일체의 일치를 반영하였다.
- 그의 추종자들이 형제애 안에서 살아 성부, 성자, 성령의 관계적 사랑을 반영하도록 권장 하였다.

성 프란시스는 예수님의 모습에 자신이 일치되기를 갈망했다. 그래서 그 또한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부의 경이로운 사랑을 가능한 많이 체험할 수 있었을 것이다. 그는 성령이 성부와와의 관계로- 그리고 복된 삼위일체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해주는 힘과 영감의 근원임을 알았다. 프란시스는 삼위일체의 세 위격 모두와의 살아있는 관계를 추구했다. 성부와 일치안에 있기 위하여, 프란시스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완전히 스스로를 봉헌하고자 했다.

프란시스의 글에는 각 페이지마다 하느님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?

- 아버지 (하느님을 지칭함) 가 97번 사용되었고

- 이름 (하느님)으로 219번 언급되었고
- 주님이라는 말로 364번 언급되었다.

이번 주에 시간을 내어서 그의 글에 나타난 프란시스의 하느님과의 관계의 예들을 읽어보기를 바란다. 그 글들중의 다음 세 가지가 시작하기에 좋은 글이다.

인준받지 않은 수도 회칙 특히 23장 “기도와 감사” [FA:ED, vol. 1, 81](#)

권고 1 [FA:ED, vol. 1, 128](#)

성무일도 전에 바치는 찬미경 [FA:ED, vol. 1, 161-](#)

주님의 수난 성무 일도중에 있는 주님의 기도 풀이 : [FA:ED, vol. 1, p. 158](#)

토론이나 저널 묵상쓰기를 위한 질문

- + 어떻게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는가? 어디에서 영감을 얻는가?
- + 성 프란시스의 글들은 그의 영성에 대해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는가?
- +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부, 성자, 성령이신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는무엇인가?